

#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               |                                                                        |            |
|---------------|------------------------------------------------------------------------|------------|
| 주일미사          | * 8:00 AM<br>* 10:00 AM (교중미사)<br>* 2:00 PM (학생미사)<br>* 5:00 PM (청년미사) |            |
| 토요일저녁<br>주일미사 | * 7:30 PM                                                              |            |
| 월, 목, 토       | 화, 금                                                                   | 수          |
| * 6:00 AM     | * 7:30 PM                                                              | * 11:00 AM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 야외 올뜨레야 행사



지난 주일(9월 28일)에 본당 꾸르실료가 성당 나눔터에서 야외 올뜨레야 모임을 가졌습니다. 60여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이 모여 준비된 고기와 밥, 그리고 각 팀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후배 꾸르실리스따들이 함께 모여 신앙적 체험과 여러가지 소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체육관에 모여 간단한 게임 속에 친목을 다졌습니다. 야외 행사에 도움을 주신 꾸르실리스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며, 바쁜 일정 중에 꾸르실료 각 팀마다 돌아다니시며 격려해 주신 주임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쁘레시디움 신입단원 선서식



지난 9월 28일, 3개월간의 수련 기간을 마친 오복미 도미칠라 자매님과 광영민 아녜스 자매님께서쁘레시디움 정단원으로서의 첫 선서를 하셨습니다.

착한 의견의 어머니쁘레시디움은 매주 주일 오전 8시에 주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쁘레시디움은 성모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며, 축복해 주신 신부님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 겨자씨의 믿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돌무화과나무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에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딥니다. 반면에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작은 믿음도 돌무화과나무처럼 견고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겨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명령받은 모든 힘든 일을 수행하고 나서도,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하든, 주인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권리나 보상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했다 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지신 것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오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승복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고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겨자씨만큼 작고 깨지기 쉬운 믿음이라도,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나오고, 삶의 경이로움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고국성지순례 소식



= 순례팀에서 전해 온 기도문 =

+ 감사의 하느님!

순교 신앙성인들의 발 자취를 발 자취를 돌아볼 순례의 길을 만들어 주신 크나큰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여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어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도 이 순례를 통하여 순교자들의 고통을 통한 영광을 깨닫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본받아 주님을 찬미하며 살다가 세상 여정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갈때, 그들과 함께하는 영광의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금주의 교리 상식]

### 묵주기도성월이란

천주교에서 10월은 묵주기도 성월로 이 성월은 특별히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전통적인 천주교의기도 방식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1571년에 있었던 레판토 해전에서 기원합니다. 이 전투에서 가톨릭 군대가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상대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그 승리가 묵주기도를 통해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정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 성월 동안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며,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는 것을 권장 받습니다.

묵주기도는 총 5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비를 묵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신비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다.

비오 12세 교황



## 1. 연중 27주간 모임 안내

- 10월 5일 (일)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8시, 10시)  
K of C 월례회의 (오전 9시 30분)  
장터 한마당, 효도 잔치 (오전 11시 30분)

## 2. 연중 28주간 모임 안내

- 10월 10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
- 10월 11일 (토) : 유아세례 (오후 1시)  
버크 3구역 미사 (오후 3시)
- 10월 12일 (일) : 단체장 회의 (오전 11시 30분)  
꼬미시움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복사단 회합 (오전 11시 30분)  
베드로회 바베큐 (오후 1시)

## 3. 친교의 장터 한마당과 효도 잔치

-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장터 한마당과 효도 잔치가 있습니다.
- 오후 2시, 5시 미사는 없습니다.
- 장소: 하상관 주차장 및 나눔터
- 각 구역 및 소공동체별로 음식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우분들께서 함께 하시어 이 시간에 친교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을 (안나회, 하상회, 65세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장기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후 시니어 아파트 셔틀버스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 4. 10월 봉성체 안내

- 일시 : 10월 10일 (금) : 봉성체 (9시부터)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598-3316

## 5. 청년 성서 모임 모집

- 청년성서모임에서 가을학기에 함께 성서말씀을 공부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 관심있으신 분들은 10월 10일 금요일까지 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승진 아녜스 703-470-2171  
신청서 링크: <http://bit.ly/4msHOfP>



## 6. 버크3반 구역 미사 안내

- 일시: 10월 11일(토) 오후 3시
- 장소: 유지광 베난시오, 유보나 보나님 댁
- 버크 3반 형제자매님들께서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 안나회, 하상회 성지 순례 안내

- 안나회, 하상회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성지순례를 가십니다. 몇년 만의 성지순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성지순례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세요.
- 일시: 10월 13일(월) 오전 9시 - 저녁 5시
- 장소 : Emmitsburg, MD  
오후 1시에 내셔널 그루토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 8. 푸르실료 주관 하상 파리파스 후원을 위한 5K 걷기 / 달리기

- 일시 : 10월 18일 (토) 아침 7시-오전 10시
- 장소 : Burke Lake Park(Shelter A)
- 신청 : 오전 8시/10시 미사전후 로비, 친교실
- 참가비 : 1인: \$20, 2인: \$30  
한가족 (3인): \$40 (아침식사제공)
- 문의 : 박기정 라파엘 간사 703-862-0039



온라인 신청

## 9. CLC 서약식 안내

- 첫 서약자와 유기 서약자를 위한 서약식이 있습니다.
- 일시 : 10월 18일 (토) 오후 1시
- 주례 신부님: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

## 10. 결혼 희년 미사 안내 (Mass for Marriage Jubilarians)

- 결혼 50주년(1975년), 25주년(2000년)이 되신 교우분들을 위해 교구에서는 마이클 버비지 주교님 집전으로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9일 (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St. Thomas More 주교좌성당
-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28일까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학생 견진성사 미사 안내

- 일시 : 10월 28일 (화) 저녁 6시 30분
- 교구장이신 마이클 버비지 주교님의 집전으로 견진 성사 미사가 있습니다. 주교님의 공식 방문인 학생 견진 미사에 주일학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신자분들이 참석하시어 견진 받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견진 성사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2.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 성당 홈페이지와 주보를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성당 홈페이지를 QR코드로 만나보세요.
- 본당 주보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대 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13. 감사합니다!

- 프란치스코 재속회 피정후 성당에 \$507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벨 연주곡 소개]

본당 핸드벨 팀인 마니 안젤리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 주일 10시 미사에서 2번 연주합니다.

- 첫째주 곡명: Our Song Shall Rise to Thee
- 의미: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는 가장 널리 사랑 받는 곡 중 하나입니다. 장엄한 선율 속에서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이 함께 드리는 찬양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 셋째주 곡명: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례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랑, 진리, 기쁨, 희망 등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것을 노래하는 찬미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도는 한국 성당에만 있는 특별한  
의식인가요?



- 한국 교회에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연도라는 독특한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위령기도'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연도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 천주교 신자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가보면 조문을 온 신자들이 시편에 우리 가락을 붙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단성 가락을 붙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전통을 전례에 받아들여 만든 한국 천주교만의 독특한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령기도 자체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는 시편을 토대로 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파리외방전교회 사제들)이 이 기도를 들여와 우리 운율과 가락에 맞춰 기도하던 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 유럽에서 하는 기도문은 성무일도의 아침, 점심, 저녁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성인호칭기도는 없습니다. 반면 연도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시작 기도 다음에 시편 63편, 130편, 51편을 이어서 노래로 하고 성인호칭기도, 찬미와 간구, 그리고 주님의 기도와 마침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 한국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사를 지낼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으나 우리 선조들은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인의 가족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사실상 제사의 다른 형식을 열어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제사를 고유 문화의 일부로 인정하여 한국의 신자들은 조상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연도를 바침으로써 가톨릭적인 제사를 지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9월 28일 (연중 제 26주일)

|            |       |             |
|------------|-------|-------------|
| 봉헌금        | ----- | \$8,674.00  |
| 교무금        | ----- | \$3,430.00  |
| 교무금 (신용카드) | ----- | \$2,600.00  |
| 감사 헌금      | ----- | \$520.00    |
| 온라인 봉헌     | ----- | \$3,125.00  |
| 합계         | ----- | \$18,349.00 |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10월 9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10월 10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10월 12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강론
2. 가톨릭 뉴스
3. 김현우 신부님 본당 특강 1부: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           |             |
|-----------|-------------|
| 10/5 다음주  | 페어팩스 1구역    |
| 10/12 다음주 | 페어팩스 2구역-1반 |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